

Add in the Scape  
Nestle in  
EXIT ARCHITECTS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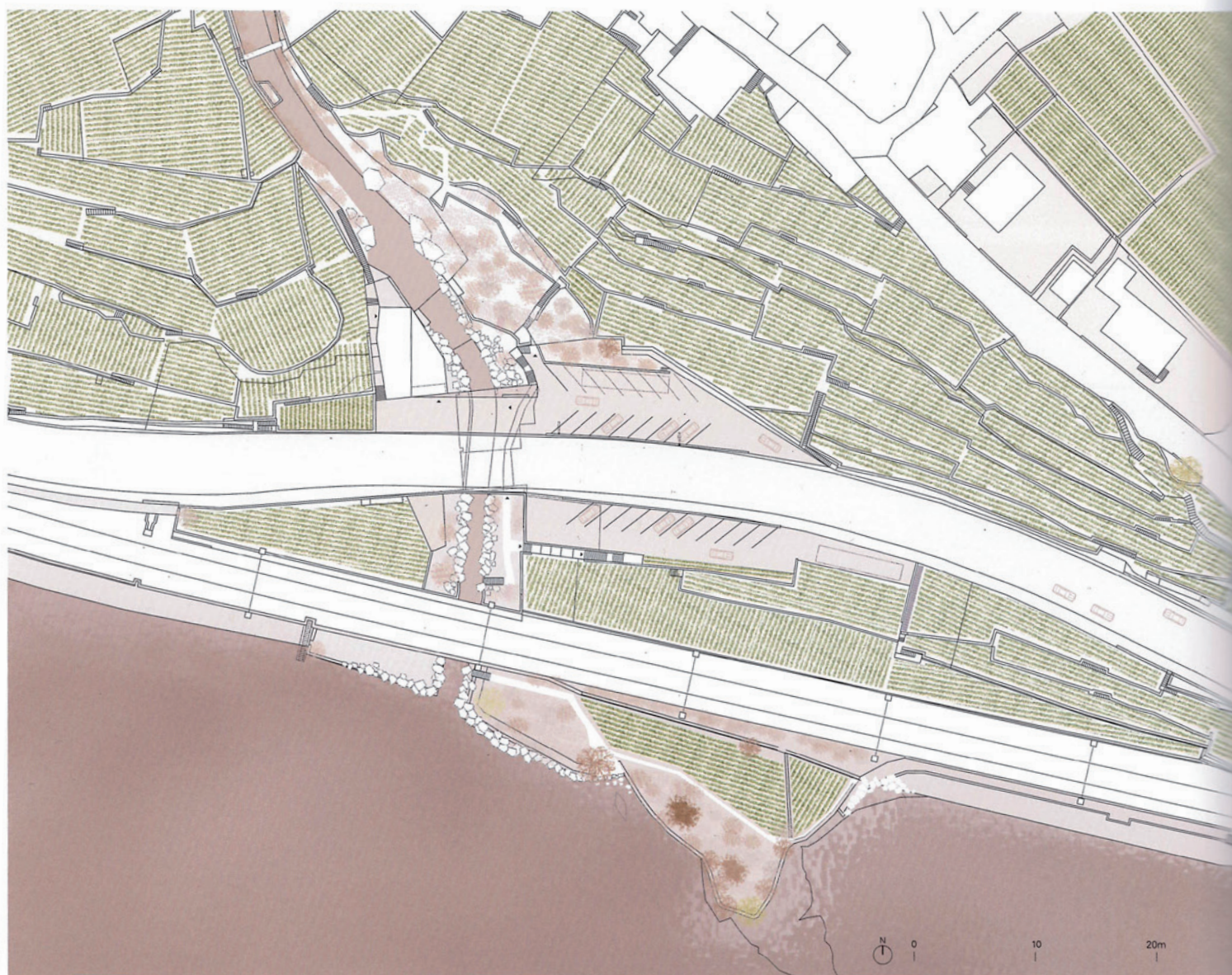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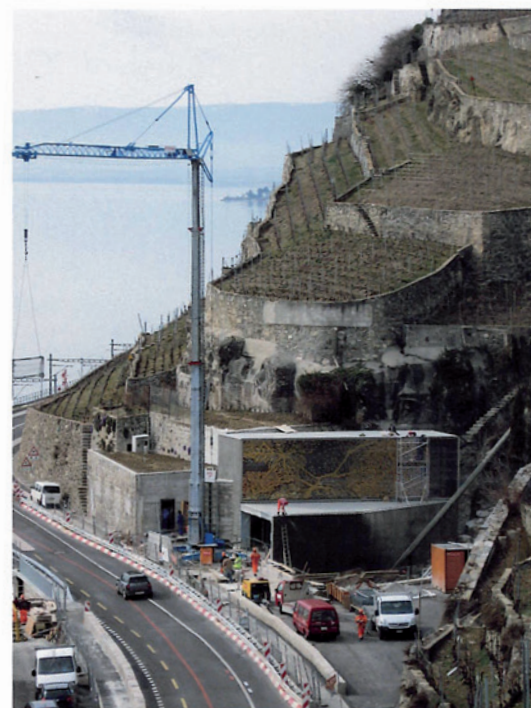


## Wine Tasting Center in Lavaux

Atelier d'architectes Fournier-Maccagnan







Project: Wine Tasting Room in Lavaux  
Location: Route du Lac 2, CH-1071 Rivaz  
Architects: Atelier d'architectes Fournier-Maccagnan  
Visual artist: Daniel Schlapfer  
Site area: 2,535m<sup>2</sup>  
Bldg. area: 330m<sup>2</sup>  
Gross floor area: 503m<sup>2</sup>  
Completion: 2010  
Photograph: ©Thomas Jantscher (courtesy of the architect)



The construction of a site dedicated to the promotion of vineyards and wine, located in a landscape recognized as a World Heritage entity by UNESCO and under its protection, requires some deep reflection on its integration. The site offers both unique and typ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terraced vineyard, the lake and the stream running from the Forestay, offering both a division of the land as well as unique structural elements.

The first body is barely discernible among the terraced vineyards that envelope it, while the main space breaks free and asserts itself with a separate identity. Like the roofs of the village visible above and behind, the facades reflect a manually worked character. Concrete composed of local sand and aggregate was incised with a rake before setting, creating an effect both raw and worked by a human hand, imposing itself forcefully and naturally like a rock face at the foot of the Forestay cataract. The cultural image of the building is exemplified by a hanging steel canvas representing grape vines and leaves in a pixelated stylization, created by the artist Daniel Schlapfer.

The interior spreads into spaces dedicated to wine. The reception with its wine-tasting bar is the central element of the concept. Spacious pigeonholes to hold and present the bottles line the walls, their warm oak reminding us of wine barrels while at the same time serving as a sound-damping element. One is surrounded by wine. The light is soft and subdued as found in a cellar, further conserving the wine. Tasting takes place in an intimate space encouraging introspection. Half-light accompanies the visitor along their tour, punctuated by corridors and stairways evoking typically maze-like wine vaults or even the cramped nature of a vineyard path. Exploration leads to the self-service enomatic area, to the projection theater in the basement, and to the conference space on the upper floor. From here, through the mesh of the hanging canvas, the cascade, vineyards and lake are visible—the only place in the structure from where these may be viewed. The use of local materials is an integral part of the architectural concept: raw concrete and steel, elements characteristic of the vineyards, along with oak woodwork as present in the winemaking process. Atelier d'architectes Fournier-Maccagnan

#### 스위스 라보 지구 와인 시음장

스위스 라보 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푸른 호수와 계단식 포도밭, 주변 마을의 경관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라보 지구 와인 시음장은 바로 이 풍경 속에 자리한다. 주어진 부지는 그 자체로도 매우 독특하다. 전면에는 넓은 레만 호수가, 양면과 뒤쪽으로는 계단식 포도밭이 펼쳐지며, 이 땅만의 특성을 만든다. 그러나 이렇듯 독특한 조건은 건축가의 개입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해법은 '통합'이라는 개념에서 찾았다. 새로운 건물을 짓되 기존의 풍경을 해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놓여있던 바위처럼, 건물은 주변의 풍경과 완전히 통합된다.

홍보 센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도로에 맞닿아있는 건물은 정면에 어떠한 개구부도 내지 않았다. 대신 지붕에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건물이기보다는 계단식 포도밭의 일부가 되려는 듯 하다. 지붕과 벽에는 표면을 거칠게 처리한 시멘트를 사용했다. 시멘트에 모래와 현지에서 구한 돌을 섞은 후, 갈퀴로 흠집을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벽은 수작업의 결과물이지만, 자연의 작품처럼 보인다. 이 역시 건물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요소이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그래픽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만들어 낸 황금빛 입면이다. 철망 위에 포도나무 잎의 모습을 픽셀 화하여 표현했는데, 별다른 표식 없이도 우아하게 건물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실내에서 개념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음용 바가 마련된 진입부이다. 벽을 뚫고 채우고 있는 와인 선반들은 시음이라는 미각적인 즐거움뿐 아니라 시각적인 장식 효과까지도 제공한다. 은은하게 비추는 빛도 그 분위기를 더한다. 이렇듯 내향적인 공간에서 방문자들은 와인과 더욱 친숙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지나 어슴푸레한 빛을 따라가다 보면 와인 저장고에서 증증 볼 수 있는 메로 같은 길이 나온다. 몇 개의 조명만이 설치된 어두운 복도는 누군가 마을을 누릴 것만 같은 분위기다. 양 갈래로 나뉜 복도의 한쪽은 위층에 있는 응접실로, 다른 한쪽은 지하에 있는 영사실로 이어진다. 사실, 황금빛 입면에 맞닿아있는 응접실은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돌, 가공하지 않은 철제, 포도밭의 독특한 요소들, 포도주를 빛을 때면 항상 등장하는 오크나무와 같이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지와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다. 아폴리에 드 악쉬텍츠 푸후니에 마카그난

